

부동산 내부정보 이용 거액 착복 기사 관련, 해당 사항은 리츠와 “관련”이 없습니다.

<보도 내용 (해럴드경제 등, 5.2) >

◆ “대금 뺑튀기·순익 가로채기...200억 착복 리츠 임원 등 6명 기소”

-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(□□투자운용) 임원이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정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약 200억원을 착복

□ 보도내용 중 혐의사항은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관련된 것으로서,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해당 자산운용사인 □□투자운용은 리츠와 부동산펀드 업무를 겸영

- 국토교통부에서는 정기 현장검사(매년 2차례), 온라인 검사(수시), 분기별 투자보고서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리츠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토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백승호 (044-201-3411)
	부동산투자제도과	담당자	사무관	양국현 (044-201-3417)